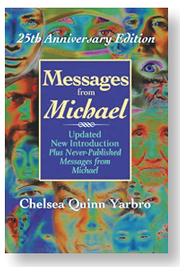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❽ 첼시 퀸 야브로의 '마이클 메시지(Messages from Michael)'



▶ 한줄 요약
성숙된 이들이 늘어날 때 사회 평화 이어져

연기 체득, 영적 깊이 더한다



첼시 퀸 야브로(Chelsea Quinn Yarbro)는…
공상과학, 로맨스, 공포,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80여 소설책을 썼다. 월드 판타지 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하고, 인터내셔널 호러 길드로부터 '살아 있는 전설'로 명명됐다.
자신들을 '마이클'이라 지칭하는 한 그룹(a group entity)으로부터 채널링으로 전달받은 〈마이클 메시지(Messages From Michael)〉는 그녀의 저작물 중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윤회 전생을 통해서 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혼의 나이(Soul Age)'를 구분하면서 그 특징을 해설한 〈마이클 메시지〉는 문고판으로 간행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혼의 진화 5단계로 분류
인생 성숙도를 영적 해석
무르익은 혼, 연기 인식

혼의 성숙도 나타내는 '혼의 나이'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공부 모임에서는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한 한 존재(그는 스스로 1,053명의 집단 혼이라고 한다)가 채널링을 통해 나타나 '혼의 나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불교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저절로 떠올리게 만드는 '혼의 나이'는 서구 세계를 뒤흔들고, '마이클학'(혼의 심리학)이라고 불릴 정도인 몇십 권의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도의 세계'(혹은 근원의 자리)에 거주하던 '의식의 빛'이 지구별에 이끌려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부터 '혼'은 나고 죽기를 거듭하면서 혼 자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간다. 그러한 진화의 단계를 미카엘은 아기 혼, 어린 혼, 젊은 혼, 성숙한 혼, 무르익은 혼이라고 부른다.

아기 혼과 어린 혼

도의 세계에서 막 빠져나온 아기 혼(Infant Soul)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처럼 아직 나와 너, 나와 세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따라서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하지 않다. '아기 혼'은 성장해 감에 따라 소위 '머리가 커져서' 자기 영역을 점차 확보하게 되고, '어린 혼'을 거쳐 '젊은 혼'에 이르게 되면 나(에고)에 대한 의식이 절정을 이룬다. 말끝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영토 확장과 관련지어지지 않으면 대화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생존에의 악조건과 싸우느라 '두려움'이 몸에 밴 아기 혼들은, 문명사회에 태어나게 되면 정규적인 일자리를 마다하기 일쑤이고, 기껏해야 단순노동에 만족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히기를 싫어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기 혼들은 생리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교정에서 여러 명에게 총기를 난사한다든가 강도 강간 사건의 많은 경우가 아기 혼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아기 혼들은 사고를 쳐도 영토 확장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외적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폭발된다.

하지만 어린 혼(Baby Soul)으로 성숙한 뒤에는 본격적인 영토 싸움에 빠져든다. 긍정적인 성향이 발달되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양심적인 시민이 되지만, 부정적인 성향이 발달되면 갱단을 조직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자 자신의 영향력 확장에 골몰한다. 어린 혼의 철부지 같은 영토 확장의 욕망이 대중의 혼적인 상태와 만나 결탁되면 히틀러나 호메니, 이디 아민 같은 독재자에게 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독한 레슨비를 지출하게 한다.

젊은 혼과 성숙한 혼

개체적인 독립심이 뚜렷하게 발달된 젊은 혼(Young Soul)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주요한 삶의 목표가 된다. 아파트 평수가 넓을수록, 좋은 차를 가질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여 저절로 어깨가 올라간다.

"여기에 당신이 있고 내가 있다. 나는 당신을 이길 것이다"는 모토를 갖고 삶에 임하는 젊은 혼들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학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재산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자기 가치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한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부자는 '다 소용없는' 짓이었으며 고작 자식들끼리 유산 다툼이나 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다. 그런 인식은 다음 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아주 많은 참고 자료가 되어준다.

반면 지지리도 못살던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었다면 다음 생에서는 엄청난 일 욕심과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남다른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생을 거듭하면서 따고 잃고 따고 잃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젊은 혼은 돈에 대한 균형감각을 차츰 터득한다. 처음에 딸 때는 그것을 곧 자기 존재 가치의 상승으로 여기고 콧대가 높아져서 우쭐대다가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뼈아픈 존재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돈을 딸 때는 첫 번째 딸 때보다는 그만큼 덜 교만해지고, 이렇게 따고 잃음을 거듭하면서 마침내는 '돈=나'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돈을 마스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의 혼은 어느덧 '성숙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

젊은 혼들의 영토 싸움은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제1,2차 세계대전도 젊은 혼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영토 및 세력 다툼에 다름아니었지만, 인류는 엄청난 희생자 내지는 주역, 조역, 단역 들의 피묻은 활약상을 통해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9.11테러라는 참혹한 사건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건 앞에서 배신감과 증오, 상실감에 온 미국과 세계가 들끓고 있을 때 몇몇 성숙한 혼(Mature Soul)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촛불 집회를 열었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보낸 빛과 사랑의 메시지는 크나큰 공명을 낳아 '테러 방지를 위한 평화 집회'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로 일파만파 번져 나갔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안전'을 모토로 울타리를 높이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으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구촌의 문명은 분명 지칠 줄 모르고 밀어붙이는 '젊은 혼'들의 공이 대단히 크지만, 생산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양이 황폐화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젊은 혼들은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의식의 우위를 확신하지 못한다. 성형수술이 인기를 끌고 미용 산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번창한 것은, 젊은 혼들이 그만큼 득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젊은 혼의 단계를 지나 성숙한 혼(Mature Souls)이 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성숙의 시기를 맞은 그들은 외부의 돈이나 학벌이나 영향력 등과 자기를 동일시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그것들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시작한다. 성숙된 혼들은 젊은 혼들이 꾸려가는 위선과 아첨이 횡행하는 이 사회를 해체하고 싶어한다. 성숙된 혼이었던 고갱은 9시에서 17시까지 이어지는 틀에 박힌 은행원 생활을 벗어던지고 어느 날 갑자기 타이티 섬으로 떠난다.

열정과 생명력으로 무장한 스타들은 대체로 성숙한 혼들로서, 마이클 잭슨,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마이클 더글라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인 폰다 등은 '성숙한 혼'으로 꼽힌다.

무르익은 혼

성숙을 넘어 무르익은 혼(Old Souls)이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림은 물론, 작은 세포 하나에 내 몸 전체의 유전자가 기록되어 있듯이, 내 존재가 곧 우주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눈을 번쩍 뜬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르익은 혼들은, 그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을 두루 경험해 본 무르익은 혼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늘 유보한다.

무르익은 혼들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능하다. 그림 같은 집과 차, 멋진 옷이나 보석이 무르익은 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틀에 박힌 직장 생활도 거부하기 일쑤다. 물질 세상에서의 이런 게으름이 때로는 궁핍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게임이 늘 같은 방식으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 물질계의 법칙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무르익은 혼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아스트롤로지, 우주 철학, 타로 카드나 다른 고대의 가르침에 끌려서 그 방면의 대가가 되기도 한다. 사랑을 강조하는 여러 종교와 가르침들을 탐험하길 즐기기도 한다. 무르익은 혼은 수많은 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번갈아 살아보았기 때문에, 두 에너지가 고루 섞여 있어서 성에 대한 정체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무르익은 혼이 가르침에 나설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하다. 그만큼 도약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존 레논과 요코 오노, 스팅, 주디 콜린스 등은 음악을 통해서 지구촌의 잠재의식에 폭포수와도 같은 시원한 충격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폴 윈터, 조지 윈스턴, 기타로 등의 뉴에이지 음악가들도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내면의 눈부신 공간에로 초대한다. '왕자와 거지'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왕자임을 은연중에 깨우쳐 주고자 했던 마크 트웨인도 무르익은 혼에 속하고, 아인슈타인, 셜리 맥클레인, 로버트 레드포드 등도 무르익은 혼들이다. 노스트라다무스, 구르지예프, 칼 융, 라즈니쉬, 람 다스, 묵타난다, 달라이라마 등 성자라 할 만한 여러 무르익은 혼들은, 아직도 어둠에 물들어 있는 지구촌의 의식에 등불 하나씩을 켜들고 그보다 어린 혼들을 향해 밝음으로의 초대장을 띄워 보내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다. 〈작가〉

처음 펼쳐보고 밤새워 노래(頌)를 짓다.



백봉 김기추 강송 | 312쪽 | 양장 | 18,000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그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 1982.7〉

1976년에 출간한 4판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 재 편집

거사 생존시의 최종 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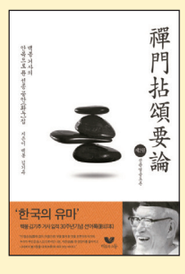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
백봉 김기추 거사 일대기
최운초 지음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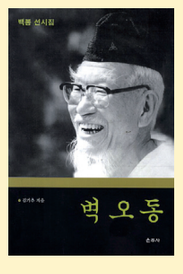
공겁인1, 2
백봉 거사를 모시고 치열하게 수행을 한 제자들의 수행이야기와 백봉 거사와 인연이 깊었던 스님들의 인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최운초 지음 | 각권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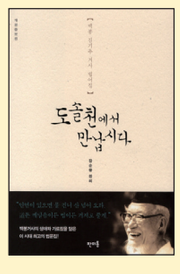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강론
불광출판사 | 18,000원



선문염송 요론
백봉 김기추 지음
비움과소통 | 12,000원



벽오동
백봉 선시집
백봉 김기추 지음
운주사 | 10,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문집
장순용 편저
판미동 | 15,000원

가야출판사 전화 055-756-6707, 010-7202-1035 팩스 055-762-6708